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산화를 넘어 품질로 승부하다 유압기어모터 끼임현상 개선 및 가공기술 향상 지원

우리나라 건설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건설 산업이 해외에 진출한 지 올해로 50주년, 그간 누적된 수주 총액이 7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세계 유수의 건축물 상당수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것들이라니, 그 이면에는 남모르게 땀방울을 흘린 건설기술자들의 노고 그리고 눈부신 건설기술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한 일일 터. 그 중에서도 건설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중기와 굴삭기 등과 같은 건설기계이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많은 작업들이 이러한 건설기계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오랜시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주)대현하이드로릭스의 유압기어모터 기술 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기술지원기업 (주)대현하이드로릭스

연구책임자 대경지역본부 건설기계부품그룹 신대영 그룹장



유압이란?

입력을 가한 기름으로 피스톤 따위의 동력 기계를 작동하게 하는 일

국내 최초 기술, 새로운 국면에 부딪히다

1988년 창립된 대현하이드로릭스는 건설장비 부품 전문 제조기업이다. 특히 유압기어펌프 및 모터 등을 제조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납품하며 건설기계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현하이드로릭스는 가공만을 다뤘었다. 도면을 보고 정확한 치수대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면

되었던 것. 그러나 건설기계의 핵심 부품이 외산에 의존하는 것을 보고 국산화 기술 개발에 돌입, 약 10여 년 전 국내 최초로 유압기어모터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R&D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는 대현하이드로릭스 김범환 대표.

“약 10여 년 전에 유압기어모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품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섬세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게 되었죠. 정확한 치수대로만 나오면 그만인 가공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현하이드로릭스에서 개발한 유압기어모터란 쉽게 말해 냉각팬을 돌리는 모터를 일컫는다. 건설기계는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품들이 열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사막에서의 작업이나 여름철같은 경우, 엔진을 비롯한 부품들이 열을 받아 급기야는 장비가 멈추게 된다는 것. 이때 유압기어모터가 엔진 앞에 설치되어 팬을 돌려 바깥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료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뜨거운



▲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대현하이드로릭스 김범환 대표(좌)와 건설기계부품그룹 신대영 그룹장(우)